

### 이렇게 들었다

#### 합리적인 소비

## 多欲은 바로 괴로움이니라

과연 우리사회를 꿈꾸어온 IMF재정구조의 한파는 사라진 걸까?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고급음 로비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각종 사치성 소비재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이 0.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8.9% 증가한 사실은 작금의 소비증가가 바람직한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아님을 보여준다. 적절한 소비는 경제의 윤희유 역할을 하지만 계속되는 소득 감소와 수출 부진속에서 횡행하는 과소비는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제안정을 저해한다는 것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해 새겨둬야 할 부처님 말씀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과욕(寡欲)에 적은 것으로 만족해서, 많은 것을 탐구(貪求)치 않고 많은 것을 축적(蓄積)하지 않는다면, 축적함이 없으므로 온갖 재앙에서 멀어지고, 온갖 재앙에서 멀어지므로 온갖 우려(憂懼)에서 멀어지고, 우려에서 멀어지므로 여러 괴로움의 모임에서 멀어지고, 여러 괴로움의 모임에서 멀어지므로 애욕(愛欲)이 없어지고, 애욕이 없어지므로 능히 온갖 번뇌(煩惱)를 다 끊게 된다. <보문경>

■ "이 온갖 중생이 만족할 줄 몰라서, 항상 남의 재물을 구해 그릇된 생

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저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구의업(身口意業)의 바른 생활의 도리속에서 살게 하리라." <화엄경>

■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무명(無明)의 전도심(顛倒心)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惡道)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니건지경>

■ "비구(比丘)야, 다욕(多欲)은 바

로 괴로움이니라. 생사피로(生死疲勞)도 탐욕(貪欲)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소욕(少欲)해 담담히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자재(自在)할 수 있을 것이다." <팔대인각경>

■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 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禪定)에 들어 반성하여서, 족한 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 보살은 세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라 할 지라도 정욕(情欲)에 집착하지 않아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신심단체와 교구차원에서 실시된 전담기구 두 가지 경로로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다.

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마치 사람이 있어 도둑이 들끓는 위험한 곳을 지나가는 경우, 그곳에 비록 마시고 먹을 것이 있다해도 항상 두려워해서, 오직 언제든 이 위험한 고장을 벗어날까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세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욕망을 느껴야 할 처지에 있기는 해도, 늘 이런 욕망들로 하여 저지르는 과실이야말로 온갖 괴로움의 근본임을 깨달아, 애욕의 정을 일으키지 말고, 이를 두려워하여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불보출생경>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왕후의 자리를 보되 틈새를 지나는 티끌 흙으로 여기고, 금옥(金玉)의 보물은 기와나 조약돌, 비단옷은 누더기, 대천계(大千界)는 한 알의 하리투(阿耨地) 열매, 아늑지(阿耨池)의 물은 밭에 바르는 기름, 방편(方便)의 가르침은 신통력으로 만들어 낸 보배 무더기, 열반(涅槃)은 대박이나 저녁때에 깨어 있는 일 같이 여기느니라." <사십이장경>

지난달 21일 신세대 청소년들을 한층 불교와 가깝게 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했던 불속 특집 '결식아동돕기 록 페스티벌', 불교 가르침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록'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또 국악이나 기온에 많이 행해지는 찬불가 발표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록 페스티벌'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행사 당일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올림픽공권내 펜싱경기장은 1천여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 실망했다.

관중 동원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홍보 부족일까.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선거국은 공연 한달전부터 교계 언론을 비롯한 중앙 일간지와 SBS-TV의 5차례 광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행사를 알렸다. 또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해 파라미터 청소년연합회, 대불련 등 청소년 교계 단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나 공연 내용도 시나위, 김경

호, 카르마 등 국내 록 정상급이 출연했고 관중들도 무대위의 가수들과 함께 열광하는 등 반응도 좋았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관중 동원 실패의 원인은 교계의 무관심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청소년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특색있고 재기발랄한 청소년들을 불교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포교방편만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다. '록페스티벌' 같은 신세대 감각의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도 급변하는 청소년들의 구미에 맞는 적절한 포교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록 페스티벌'이 관중 동원에 실패했다고 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재를 거울삼아 회수를 더해갈수록 알찬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진행 등 관목있는 운영으로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청소년 불자들을 키워내는데 교계가 합심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jkim@byddhopia.com)



김주일 (취재 2부 기자)

#### 록 페스티벌

# 열린마당

##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창설 10주년 자원봉사 활성화 심포지엄

### '보살도 실천=사회봉사' 인식제고 필요

◇발제: 박경일(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교자원봉사활동의 사상적 기반은 인간존엄성으로서의 생명중중사상, 자발성으로서의 보살도, 무보수성으로서의 무주상보시관, 이타성으로서 사무량심(四無量心)에 의한 자비관, 사회연대성으로서의 연기관, 실천성으로서의 사십법, 계승성으로서의 복전관의 7가지이다.

불교자원봉사활동의 의의는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한 보살도정신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적 역할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 인류전체의 복지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것에 있다.

불교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종단차원에서 현재 활동자와 잠재적봉사자 그리고 공급주체들에 대해 인재, 활동사업, 정보, 법세제, 재정면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첫째 조계종단 산하의 학교법인과 자원봉사 협력교를 지정하고, 둘째 1사찰 1봉사단, 1신도회 1봉사단 조직화 운동을 활성화, 셋째 사찰내 자원봉사부 스님의 임명과 승가대학이나 포교사 양성교육과정과 사회복지장학나 자원봉사과목 개설, 넷째 불교자원봉사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자원봉사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증액과 보시한 Ten-Ten운동(보시한 보시물의 10%를 자원봉사 예산으로 투입), 여섯째 프로그램 및 불교적 용어의 프로그램명 개발 보급, 아홉째 심리적 보상을 위해 종단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봉사자 기념품(훈장) 수계증 형식의 수료증 제작 배포, 열째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정보교환과 명확한 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불교사회공헌활동백서 발간 등이 필요하다.

◇토론: 해도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비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봉사처 혹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와 이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봉사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교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다양한 방안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불교계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 제고 가 시급하다. 봉사처 확보 및 봉사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전개 등의 과정이 이어지기 위해 인식 제고는 필수적이다.

### 봉사를 문화활동으로 정착

◇발제: 권복순(대구호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은 대상자 중심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라는 봉사자의 정신적 자세를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동정심에 치우친 봉사자의 자세와 활동은 경계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설중심의 봉사활동을 펼쳤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신심단체와 교구차원에서 실시된 전담기구 두 가지 경로로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다.

지금 가톨릭 교회는 21세기를 대외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생과 함께 구체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신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문화적 활동으로 정착시키고 사회통합의 방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토론: 류기형(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힘의 분산을 의미하고 또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교회내, 또는 교회들간, 그리고 지역간, 전국차원의 '네트워크 시스템'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의 장점이 되고 있는 '내부대상자 중심'의 경향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제정이 필요하다.

### 교회시설의 사회화 급선무

◇발제: 전광현(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교회는 '하늘 신앙'만 강조해 왔지 '이웃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것은 곧바로 사회봉사를 가로 막는 요인이 돼왔다. 또 전도에 치우친 나머지 적극적인 사회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개별 교회의 발전구조로 인해 교회 발전과 성장에만 투자해 온 경향도 사회봉사를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회 개인주의, 개인구원주의 등에 대한 바른 신앙관·교회관의 정립, 사회봉사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 전략과 내용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이 있어야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내용의 확립과 예산 책정, 교회시설 자원들에 대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화, 교회들간의 이해와 협동 등도 수반돼야 할 조건들이다. 교회를 사회봉사의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시설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봉사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사회봉사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지역민들의 기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갖는 권위가 사회봉사에 대한 성과를 좌우한다고 볼 때 교회의 사회복지 전망은 밝다고 말할 수 있다.

### 교단차원 봉사교육 다양화

◇발제: 원석조(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불교 자원봉사는 원불교 봉공회와 사회복지관의 재가봉사 활동으로 대별된다. 전자가 교도들의 조직이 주체가 된다면, 후자는 교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봉공회의 경우 자체 시설 기관이 없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고, 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원불교 사회복지관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확보와 실효성있는 자원봉사 교육, 종교대학생의 경우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본질과 의의에 대한 교육, 가정주부 직능자 자원봉사자의 경우 복지관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또 원불교 교단이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총부에서 자원봉사 총괄기구 역할과 자원봉사 교육 실시, 원불교 봉공회의 사회봉사기관으로 성장 지원 등을 담보해낼 수 있어야 한다.

◇토론: 박광준(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 각 종교는 독자적인 자원봉사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봉사로서의 자원봉사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사회참가로서의 자원봉사나 공동체형성의 교육으로서의 자원봉사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과학화도 필요한 부분이다. 과학화의 핵심은 '대상자성정의 과학화'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자원봉사의 차원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다.

소리없이 팔리는 책

##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



주머니 속 대장경

XX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화 갈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저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부다의 음성 '선상천하유아독존'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포리를 본다.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조선 시대 선사 41인의 선사 모음집

허운(虛雲)화상의 참선수행 요결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101 - 교리 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502 - 문화·학술편

102 - 교리·입문편

501 - 문화·학술편

401 - 문학편

301 - 선(禪)

303 - 선(禪)

###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야 우리도 공저, 김복근 편역 66 변형 242쪽 / 값 5,500원

###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조필 스님 편역 66 변형 178쪽 / 값 4,000원

###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동서 지음 66 변형 182쪽 / 값 4,500원

###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재철 지음 66 변형 36쪽 / 값 4,500원

###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지음 66 변형 196쪽 / 값 4,500원

### 허공의 팔쪽질

이종진 지음 66 변형 282쪽 / 값 5,000원

### 참선요지(參禪要旨)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勝) 스님 옮김 66 변형 276쪽 / 값 5,500원

###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민정조 지음 66 변형 336쪽 / 값 6,000원